

문화마을의 주거환경에 대한 거주자의 만족도4)

전 영미*, 윤 정숙**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전문연구원*, 주거환경학과 교수**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970년대 새마을 사업의 시작과 함께 한 농촌주거환경에 대한 개선은 다양한 농촌생활환경 정비정책들과 함께 추진되어 왔다. 근래에 들어와서는 종합적인 마을단위의 공간개발과 주택, 개별시설 등에 대한 정책들이 증가 추세에 있다. 이렇게 다양한 정책의 등장은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그 중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90년대부터 농림부의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추진되어 '98년 말 현재 105개 착수 지구 중 56개 지구가 분양되었다. 2004년까지 전국에 772개의 문화마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 확대 보급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 주도에 의한 사업이기에 민간영역에 의 파급 효과 또한 클 것으로 본다.

그 동안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여러 평가가 제기되어 왔다. 긍정적인 평가로는 농촌마을의 현대화, 면지역 인구 감소율의 둔화 등이다. 부정적인 평가로는 신규단지 조성에 따른 기존주민과 입주주민간의 갈등, 투기성, 경제논리가 강조된 바둑판식의 획일적인 단지조성, 주변 자연환경과의 부조화, 지역적 차별성 미비, 소득기반시설의 미흡 등이 제기되고 있다.(농촌진흥청, 1995; 농어촌진흥공사, 1997). 그러나, 이러한 평가들은 체계적인 연구에 의하여 검증된 것이 아니므로 좀더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향후 농촌마을의 계획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마을 유형별로 거주자의 요구를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촌 문화마을의 유형에 따라 주거환경에 대한 거주자의 만족도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문화마을의 계획 및 정책에 있어서 활용 가능할 것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현지조사방법에 근거하여 거주자와의 면접을 통하여 자료를

4) 본 연구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수행한 '문화마을조성사업 사후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1(1998)'의 일부 자료를 분석한 것임.

수집하였으며, 예비조사(1998. 6)와 본 조사(1998. 9 - 1998. 10)⁵⁾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그 결과 8개 지역에서 거주자 면접지 109부를 수집하였다.

조사지역은 지역선정 기준⁶⁾에 따라 신촌형, 확장형, 정비형의 마을유형에서 8개의 지역⁷⁾을 선정하였다. 문화마을이 대부분 신규조성형인 점을 감안할 때 전국 6만 7천여 개의 농촌에 일반화시킬 수 없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 마을을 재정비한 유형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조사내용은 거주자의 일반사항 주거환경의 실태, 거주자의 만족도로 구성하였다. 주거환경 실태는 조사자가 관찰 기록하였다. 거주자의 만족도는 선행 연구의 고찰을 토대로 WHO에서 제시한 개념을 수정 보완하여 안전성, 편리성, 위생성, 쾌적성, 지역사회성으로 하였다. 이렇게 정해진 것을 바탕으로 개념을 명확히 정의한 후 각 조사항목을 찾았다. 이는 현지답사를 통하여 문화마을에 적합한 내용으로 수정 보완하였으며, 전문가에 의해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거주자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개념과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안전성 :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 교통재해로부터의 안전, 범죄로부터의 안전
- 편리성 : 교통이용 및 생활중심지 접근편리성, 상업·판매시설(일용품 구입 편리)이용 편리, 공동시설(놀이터, 공원, 마을회관 등)이용 편리, 농업관련시설(공동창고, 농기계 창고, 공동작업장 등) 이용편리
- 위생성 : 일조, 채광, 통풍이 좋음, 수질의 위생성, 오수처리 시설로 인한 환경보존, 쓰레기 수거 및 처리방식, 상하수, 전기/통신, 오수처리시설
- 쾌적성 : 충분한 녹지의 확보, 자연경관과의 조화, 주택과 마을경관의 통일성, 마을의 배치상태, 마을의 전반적 관리
- 지역사회성 : 마을주민의 친목교류성, 마을주민과 인근마을 주민과의 교류성, 마을의 특징, 마을 표지판의 특징

만족도는 ‘만족(5)-조금 만족(4)-그저 그렇다(3)-조금 불만족(2)-불만족(1)’ 단계로 측정하였으며, 불만족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면접하였다. 자료의

5) 예비조사에서는 문화마을의 현황을 파악하고 거주자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지를 작성하기 위하여 실시 함. 예비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조사내용을 보완 후 본조사를 실시 함.

6) 단지가 조성되어 주택이 건축된지 1년이 경과, 거주 후 평가를 위하여 입주 후 1년 이상 경과, 분양이 완료후 90% 이상의 주택이 건축된 곳, 농진공에서 담당할 지역 등

7) ① 신촌형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경남 밀양군 무안면, ② 확장형 : 전북 고창군 고수면, 군산시 나포면, 충북 영동군 심천면(공동주택지구), 경북 김천군 어모면(공동주택지구), ③ 정비형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충남 청양군 목면

분석은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한 수량화분석(빈도, 백분율, ANOVA, t-test)으로 하였다.

3. 조사결과 및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특성과 거주특성

응답한 거주자의 연령층은 30, 40대(61.5%)였으며, 가구의 월소득이 50-150만원(63.1%)인 3-4인 가족(53.1%)으로 농업(43.1%)보다 비농업(56.9%)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았다. 다른 농촌지역에 비해 비 농업에 종사하는 젊은 세대의 핵가족이 많았다. 현재 문화마을의 거주자들은 인근 주변마을(58.7%)에서 살다가 이사온 경우가 과반수이며, 시나 군(29.4%), 대도시(11.9%)에서 이사온 사람들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주택은 대부분 1990년대에 지어졌으며, 남향(71.3%)이었다. 대지규모는 100평 내외(74.8%, 주택규모는 25평-35평 미만(71.0%)이 과반수 이상이었다.

2) 문화마을의 주거환경 실태

문화마을 내의 주택은 대부분 1층(82%)이었으며, 조적조(85%)의 슬라브 지붕형태(79%)이었다. 대지의 규모는 평균 105평이었으며, 신촌형(92.5평), 확장형(98.4평)보다 정비형(136.5평)이 다소 컸다. 주택 내 부속동은 없는 경우(53%)가 많았다. 마을 내의 공동시설은 농업관련시설, 편익 및 복지시설, 소득기반시설과 쓰레기 소각장으로 나누어지며, 이 중 소득기반 시설이 가장 부족하였다. 확장형인 김천군 어모면과 군산시 나포면의 경우 타 지역보다 시설이 많았다. 그 이유는 마을 규모도 크고, 기존의 면사무소가 위치한 생활중심지와 연계되어있기 때문이다. 정비형의 경우에는 타 유형에 비해 모든 시설의 종류가 미흡하였다. 농업시설의 경우 농기계 보관장소는 주차장으로 이용되거나 공터로 남아있어 이용률이 저조하였다. 편익 및 복지시설의 경우 공원, 공동주차장, 헬스장, 에어로빅, 테니스장, 회의시설, 독서실의 이용률은 낮았으며, 노인정, 게이트볼장, 복지회관의 이용률은 높았다. 공원과 어린이 놀이터의 이용률은 배치계획시 주 진입부와 단지 내 중간에 위치되어 있는 경우 높았다. 마을 회관 내 헬스장, 에어로빅, 회의실, 독서실 등은 유지관리상의 문제로 주민의 이용률이 낮았다.

3) 주거환경에 대한 거주자의 만족도

(1) 마을유형별 거주자의 만족도

신촌형의 경우 수질의 위생성(2.95), 마을 표지판의 특징(2.67), 범죄로부터의 안전(2.85)측면에서 다소 불만족스럽게 평가하였다. 신촌형은 기존마을과는 별도의 곳에 신규로 조성한 마을 유형이다. 따라서 마을 내 주택간의 경관조화(3.85), 마을 배치(3.95)면에서 다른 유형보다 다소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확장형은 기존의 농촌마을에 문화마을을 확장하여 조성했기 때문에 편의시설이 신촌형보다 잘 갖춰진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농업관련시설(확장형 2.33)은 기존마을의 것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에 대한 불만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신촌형과 확장형 모두 공통적으로 불만을 나타낸 항목은 마을의 전반적 관리(신촌형 2.55, 확장형 2.78)였다. 이는 이장의 주도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정비형(3.56)과는 차이가 있었다.

정비형의 경우 기존마을의 특성을 살려 도로, 상하수 시설 등을 재정비한 마을이다. 따라서 일조, 채광, 통풍의 적절함(5.00), 충분한 녹지(4.84), 자연경관과의 조화(4.60), 주민과의 교류(4.85)면에서 다른 유형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반면, 생활적 측면에서는 구매(2.75) 및 공동시설(3.00)의 미비로 인하여 마을 내 편의시설에 대한 요구를 알 수 있다.

마을 유형에 따른 거주자의 만족도는 ANOVA를 통하여 그 차이를 분석하였고<표 1>, Duncan test에 의해 사후검증을 한 결과 세 유형간의 차이보다는 두 집단(신규조성형과 정비형)의 차이가 명확하였다. 이에 두 집단간의 비교(t-test)를 다시 하였다<표 2>.

우선 세 마을유형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충분한 녹지의 확보', '마을과 주변의 자연경관과의 조화', '마을 주민들간의 교류', '인근주민과의 교류'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1>. 정비형의 거주자들은 마을의 경관에 대한 쾌적성 중 '충분한 녹지의 확보'와 '마을과 주변의 자연경관과의 조화', 지역사회성 중 '마을 주민들간의 교류'면에서는 신촌형과 확장형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인근 주민과의 교류에 있어서는 신촌형(4.25)보다 확장형(3.48)에서 만족도가 낮았다. 신촌형의 경우 이웃마을과 독립되어 조성되었기 때문에 인근마을과의 교류가 빈번하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불만이 적은 반면, 확장형의 경우 이웃마을과 인접하여있기 때문에 인근마을 주민들과의 교류에 대한 불만이 다소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인근마을에 인접하여 마을을

계획할 경우 인근주민과의 교류를 고려한 계획이 필요하다.

마을의 전반적 관리에 있어서는 신촌형(2.55)보다 정비형(4.85) 거주자가 더 만족하였다. 이는 주민들과의 이웃관계가 좋은 정비형의 경우 마을 관리를 위한 주민들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이었다. 또 농업관련시설의 이용에 대한 만족도 역시 확장형(2.33)이 신촌형(3.06), 정비형(3.50)보다 낮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지만 주목할 만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비형의 경우 기존마을의 특성을 살려 도로, 상하수 시설 등을 재정비한 마을이다. 따라서 일조, 채광, 통풍의 적절함(5.00), 충분한 녹지의 확보(4.84), 자연경관과의 조화(4.60), 주민과의 교류(4.85)면에서 신규조성형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반면, 생활적 측면에서는 구매(2.75) 및 공동시설(3.00)의 미비로 인하여 마을 내 편의시설에 대한 요구를 알 수 있었다. 마을의 배치에 대한 마을 유형의 차이는 없었다. 즉 신촌형과 확장형은 바둑판식의 일률적인 배치로 획일적이거나, 정비형은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형태이다. 거주자들은 이 상반된 배치에 대하여 각각 그 상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존 연구(충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1994; 임 승빈 외, 1995)에서는 신촌형, 확장형의 획일적인 배치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교통 및 보행의 편리성, 깔끔하고 반듯한 길에 대한 도시적인 이미지에 의한 만족과 자연스러움에 대한 만족은 상반된 개념이지만 기존 농촌의 자연스러운 길 체계에 교통 및 보행의 편리성을 부여해 준다면 획일적인 배치는 지양할 수 있다.

마을 유형에 따른 거주자의 만족도 차이를 사후 규명한 결과, 신규조성형과 정비형 간의 차이가 뚜렷하며, 신규조성형 간의 차이가 있는 항목은 인근주민과의 교류뿐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거주자의 만족도 차이를 신규조성형과 정비형으로 구분한 후 다시 분석하였다<표 2>. 그 결과 위생성의 '일조, 채광, 통풍의 좋음', 쾌적성의 '충분한 녹지의 확보' 와 '마을과 주변의 자연 경관과의 조화', 지역사회성의 '마을 주민들간의 교류', '인근주민과의 교류'에 있어서 신규조성형보다 정비형 거주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표 1】 마을유형별 거주자의 만족도 비교

구 분	평 가 내 용	평균				
		신촌형 (20)	확장형 (69)	정비형 (20)	F-value	Sig
안전성	·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	4.20	4.26	3.70	1.919	.152
	· 교통재해로부터의 안전	3.10	3.26	2.55	1.609	.205
	· 도둑, 범죄로부터의 안전감	2.85	3.54	3.05	1.980	.143
위생성	· 일조, 채광, 통풍이 좋음	4.75	4.80	5.00	1.974	.144
	· 수질의 위생성	2.95	3.33	3.58	.781	.460
	· 오수처리 시설로 인한 환경보존	3.83	3.93	4.20	.466	.629
	· 쓰레기 수거 및 처리방식	3.70	3.83	3.89	.102	.903
	· 상하수, 전기/통신, 오수처리의 이용	3.50	4.12	4.10	1.570	.213
편리성	· 교통이용 및 생활중심지 접근편리성	3.65	3.49	3.25	.377	.687
	· 상업·판매시설 (일용품 구입 편리) 이용 편리	3.20	3.22	2.75	.807	.449
	· 공동시설(놀이터, 공원, 마을회관 등) 이용 편리	3.55	3.61	3.00	1.283	.281
	· 농업관련시설(공동창고, 농기계창고, 공동작업장 등)의 이용편리	3.06	2.33	3.50	2.734	.074
쾌적성	· 충분한 녹지의 확보	3.10	3.10	4.84	15.706	.000***
	· 마을과 주변의 자연경관과의 조화	3.68	3.72	4.60	5.552	.005**
	· 마을 내 주택간의 조화	3.85	3.56	3.47	3.586	.558
	· 마을의 배치상태 (획일적인 혹은 자연스런 배치)	3.95	3.80	3.93	.132	.876
	· 마을의 전반적 관리	2.55	2.78	3.56	2.667	.074
지역 사회성	· 마을주민들간의 교류	3.70	3.72	4.85	5.841	.004**
	· 인근 주민과의 교류	4.25	3.48	4.40	5.425	.006**
	· 마을의 특징	3.80	3.62	3.63	.199	.820
	· 마을 표지판의 특징	2.67	3.76	3.39	4.187	.018*
전체	· 살기좋은 동네	4.30	4.38	4.50	.251	.779

· 무응답 제외, ()은 사례수. * P<.05 **P<.01 *** P<.001

【표 2】 신규조성형과 정비형에 따른 거주자의 만족도 차이 비교

구분	평가내용	평균			
		신규조성형 (89)	정비형 (20)	t-value	Sig.
안전성	·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	4.23	3.70	1.879	.063
	· 교통재해로부터의 안전	3.23	2.55	1.776	.079
	· 도둑, 범죄로부터의 안전감	3.36	3.05	.805	.422
위생성	· 일조, 채광, 통풍이 좋음	4.78	5.00	-4.137	.000***
	· 수질의 위생성	3.21	3.58	-.921	.359
	· 우수처리 시설로 인한 환경보존	3.89	4.20	-.974	.333
	· 쓰레기 수거 및 처리방식	3.77	3.89	-.356	.723
	· 상하수, 전기/통신, 우수처리의 이용	3.98	4.10	-.350	.727
편리성	· 교통이용 및 생활중심지 접근편리성	3.52	3.25	.7293	.468
	· 상업·판매시설 (일용품 구입 편리) 이용 편리	3.18	2.75	1.191	.237
	· 공동시설(놀이터, 공원, 마을회관 등) 이용 편리	3.56	3.00	1.511	.134
	· 농업관련시설(공동창고, 농기계창고, 공동작업장 등)의 이용편리	2.67	3.50	-1.748	.086
쾌적성	· 충분한 녹지의 확보	3.08	4.84	-5.700	.000***
	· 마을과 주변의 자연경관과의 조화	3.72	4.60	-3.295	.001**
	· 마을 내 주택간의 조화	3.62	3.47	.468	.641
	· 마을의 배치상태 (획일적인 혹은 자연스런 배치)	3.83	3.93	-.276	.783
	· 마을의 전반적 관리	2.68	3.56	-2.357	.020*
지역 사회성	· 마을주민들간의 교류	3.69	4.85	-3.515	.001**
	· 인근 주민과의 교류	3.63	4.40	-2.364	.020*
	· 마을의 특징	3.61	3.63	.146	.884
	· 마을 표지판의 특징	3.49	3.39	.272	.786
전체	· 살기좋은 동네	4.34	4.50	-.689	.492

· 무응답 제외, ()은 사레수 * P<.05 *** P<.001

(2) 거주자 만족도의 중요항목 및 개념

마을 주거환경에 대한 거주자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항목과 평가 개념을 추출⁸⁾하였다. 거주자의 전체 만족도를 결정하는 것은 ‘마을 주민들간의 교류’, ‘상업·판매시설의 이용편리’, ‘우수처리시설로 인한 환경보존’, ‘교

8) 중요항목의 추출은 21개의 평가내용을 독립변인으로 총체적인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였고, 중요한 평가개념의 추출은 5개의 평가개념을 독립변인으로, 총체적인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 분석하였다. 분석법은 Stepwise 방식을 사용하였다.

통이용 및 생활중심지로의 접근편리', '마을 내 주택간의 조화' 항목 순으로 나타났다<표 3>.

【표 3】 거주자 전체 만족도에 대한 중요 평가항목

순위	중요한 평가항목	B	β	t	sig. t	
1	마을 주민들간의 교류	.151	.242	2.904	.005**	R .586 R ² .344 Adjusted R ² .312 Std. Error .748 F: 10.785, Sig. F: .001
2	상업·판매시설(일용품 구입)의 이용편리	.145	.237	2.850	.005**	
3	오수처리시설로 인한 환경보존	.109	.217	2.603	.011*	
4	교통이용 및 생활중심지로의 접근편리성	.119	.194	2.296	.024*	
5	마을 내 주택간의 조화	.121	.171	2.060	.042*	
constant		2.128		6.497	.000	

* P<.05 ** P<.01 *** P<.001

거주자의 전체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평가개념을 추출한 결과,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편리성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위생성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5가지 평가개념 중 24%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다<표 4>.

【표 4】 거주자 전체 만족도에 대한 중요한 평가개념

순위	중요개념	B	β	t	sig. t	
1	편리성	.289	.327	3.602	.000***	R .490 R ² .240 Adjusted R ² .226 Std. Error .793 F 16.743 sig. F .001
2	위생성	.317	.265	2.921	.004**	
constant		2.358		6.182	.000	

** P<.01 *** P<.001

농촌 문화마을 계획에서 무엇보다도 거주자의 만족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마을 주민들간의 이웃관계의 증진을 위한 계획방향이여야 한다. 그 다음 물품의 구입, 교통 이용 및 생활중심지로의 접근에 대한 편리성과 오수처리 시설에 대한 환경의 위생성, 마을 내 주택간의 조화 등을 중시해야 한다. 이러한 결과는 마을 계획에서 거주자의 생활 편리성은 물론 거주자의 환경 및 경관의식에 대해서도 중요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4. 결론 및 제언

앞선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농촌 문화마을 계획에서 거주자의 만족도를 향

상시키기 위해서는 마을 주민들간의 이웃관계의 증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제까지 문화마을은 대부분 신규조성형으로 계획되어왔으며, 이러한 마을에서는 정비형에 비해 마을 주민들간의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다. 또한 신규조성형의 경우 토지매입이나 비용 등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의 농촌에 일반화시키기엔 무리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문화마을의 계획 방향은 신규조성형 위주로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마을의 계획방향은 지역의 입지조건과 거주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 두 가지 마을 유형을 병행해야 한다.

또한 환경의 위생성에 대한 중시경향은 향후 농촌마을의 계획에서 친환경성은 배제 할 수 없는 요인임이 입증되었다. 그러므로 마을 재정비 방식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바탕으로 친환경적이면서, 기존 마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신규조성형이 아닌 기존 마을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시설이 보완되는 형태로 시행해야 하며, 마을입지, 주택배치, 시설물의 종류와 형태, 마을 경관의 형상에서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다.

이러한 마을유형에 대한 거주자 만족도를 바탕으로 제시한 계획 방향은 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일반화시킬 수 없는 한계점을 갖는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영농방식과 농촌의 여러 가지 지역여건을 감안한 다양한 마을 유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